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문원희¹, 권명진^{2*}, 김영희³

¹배재대학교 간호학과, ²대전대학교 간호학과, ³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Converging Influence of Empathy and Prejudice against Mental Illness on Discriminatory Behavior toward the Mentally Illness Patients in the Nursing Students

Weon-Hee Moon¹, Myoungjin Kwon^{2*}, Young-Hee Kim³

¹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Pai Chai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Daejeon University

³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Daejeon Instit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허락한 간호학과 3학년 학생 17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0 프로그램의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공감능력이 증가할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행동은 감소하였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증가할수록 차별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차별행동에 영향을 준 요인은 편견과 공감능력이었으며 그 설명력은 18.8%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차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한 간호학 교육 과정 내에 공감증진과 차별감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주제어** : 공감, 편견, 차별행동, 정신질환자,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is descriptive correlational research to analyze converging influence of empathy and prejudice on discriminatory behavior toward the mentally illness patients in the nursing students. Research objects are 175 students of department of nursing and who understand purpose of this study and agree with participate in this stud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Linear Regression by IBM SPSS 21.0 program. As a result empathy increased prejudice and discriminatory behavior on mentally illness patients was reduced. And prejudice against mentally illness patients was increased discriminatory behavior. In addition, factors that affect the discriminatory behavior of the mentally illness patients are gender, prejudice and empathy. In order to reduce prejudice and discriminatory behavior on mentally illness patient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suggest that brief training program and the need for promoting empathy in the nursing curriculum.

• **Key Words** : Empathy, prejudice, discriminatory behavior, mentally illness, nursing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권명진(mjkwon@dju.kr)

Received September 30, 2016

Accepted December 20, 2016

Revised November 1, 2016

Published December 31,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일반 인구의 27.6%는 평생 한번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16%는 최근 1년 내에 하나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였다[1]. 정신분열성 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2006년 0.1%에서 2011년 0.2%로 증가하였고, 우울증의 경우 5.6%에서 6.7%로 증가하였다[2]. 이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신병, 정신병원,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 태도, 대응행동은 여전히 수동적이며 문맹적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3]. 정신질환자는 사회적 편견, 차별과 낙인 때문에 자신의 질환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2011년 정신의료 서비스 이용률은 15.3%이었으며, 이는 미국의 39.2%, 뉴질랜드의 38.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1].

차별(discrimination)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취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사회 내 교육, 취업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보건법에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할 이념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에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4-6].

이해하기 힘든 정신질환의 기이한 행동과 언어, 사고 등의 증상과 정신장애인을 위협하고 난폭한 존재로 다루는 대중매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정신장애인은 피해야 하고 멀리해야 하는 존재라는 편견을 낳게 하고 이러한 편견은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을 야기한다[5]. 기존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정신질환의 행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7-8], 접촉-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그 편견과 차별행동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9]. 이는 차별행동에 영향을 주는 대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중재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며 대학생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영향요인을 정확히 파악한 후 맞춤형의 지속적인 교육과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외 일반인들은 나이가 적을수록 낙인(stigma)을 더욱 많이 느꼈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차별행동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부모나 교사 등을 통한 간접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10-11]. 교사들은 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부족,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기사로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별행동이 나타났다[12]. 그러므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의 차별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한 후 그에 합당한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공감은 타인의 상황을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정서적 기제로 공감능력이 낮은 학생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처한 상황을 배려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공격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13-15] 개인의 높은 공감능력은 타인을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억제시키는 주요변인이며, 특히 정서적 공감능력은 도덕성에 기반을 두고 가슴으로 타인을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16-17]. 그러므로 공감능력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격이나 차별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자의 차별행동과의 관계나 영향 정도를 연구한 기존문헌은 거의 찾을 수 없다. 다만 공감능력이 부족할 경우 폭력이나 괴롭힘 등의 부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어렵게 찾을 수 있었다[13-17].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과의 관계와 그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차별행동 감소와 관련된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 시 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는 '정신장애'에 관한 낙후한 사회 인식, 낡은 법제도와 비자의적 입원, 장기 입원, 격리 치료 위주의 치료시스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등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정신보건 치료 환경이 안고 있는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하고 있다[2].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와 그로 인한 태도와 행동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편견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쳐 차별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4].

간호는 건강증진, 건강유지 그리고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는 전문직활동으로 간호사의 공감,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의 인식하고 잘못된 개념의 교정은 대상자 중심의 간호를 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미래의 정신간호를 담당할 간호대학생의 이에 대한 인식과 극복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후에 긍정적인 간호를 행하는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에 대

한 편견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을 파악하여 정신 간호 실습내용 구성 및 효율적인 정신간호 제공에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정신간호학 학습을 위한 기초자료제공에 그 목적이 있으며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간호학과 3학년 학생 175명이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inear Regression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25, 검정력 0.95로 하였을 때 138명이 산출된다. 이를 근거로 하여 180명을 편의 표출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비위해성과 연구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에 구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공감능력

Park[18]이 번안한 Davis[19]의 IRI검사, Bryant[20]의 정서공감척도를 참고하여 Jeon[21]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의 Likert 5점 척도이며, 2개의 하위영역(인지공감 15문항과 정서공감 15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ae[2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2.3.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Kim[2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의 Likert 4점 척도이며, 3개의 하위영역(위험 8문항, 회복가능 10문항, 식별가능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편견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Kang[2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3.3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Kim[23]이 개발한 총 11문항의 이분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행동이 적은 것을 나타낸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공감능력,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정도는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의 정도는 t-test 또는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s 검정을 이용하였다.
- 3) 대상자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여성이 159명(90.9%)이었고, 연령은 22세 이하가 112명(64.0%)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23.1세이었다. 봉사활동경험은 '없다'가 92명(52.6%)이었고, 간호학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이다'가 146명(83.4%)로 많았

<Table 1> Prejudice against mental illness, Empathy, Discriminatory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Prejudice against mental illness			Empathy			Discriminatory Behavior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Sex	Male	16(9.1)	52.8(7.46)	2.43*		100.3(9.27)	-0.31		5.8(3.05)	0.41	
	Female	159(90.9)	47.9(9.34)			101.1(12.97)			5.5(2.89)		
Age(yr)	≤22 ^a	112(64.0)	52.5(7.36)	3.01*	b<c	100.3(9.36)	0.17		5.7(3.01)	0.89	
	23-29 ^b	54(30.9)	51.0(7.92)			100.3(10.25)			6.0(3.07)		
	30≤ ^c	9(5.1)	57.7(7.76)			100.3(9.93)			4.5(2.96)		
Religion	Protestant ^a	59(33.7)	52.8(7.50)	0.29		99.8(8.48)	1.69		5.5(3.16)	2.83*	c<b
	Catholic ^b	17(9.7)	52.3(7.10)			105.4(8.73)			7.8(2.85)		
	Buddhist ^c	11(6.3)	53.8(10.31)			100.6(10.62)			5.0(3.0)		
	None ^d	88(50.3)	52.3(7.76)			99.8(10.24)			5.6(2.88)		
Voluntary service	existence	83(47.4)	53.1(6.99)	1.27		100.6(9.50)	0.22		5.8(2.97)	0.25	
	nonexistence	92(52.6)	51.6(8.36)			100.3(9.77)			5.7(3.09)		
Friendship	Very good	20(11.4)	51.4(6.71)	1.56		102.6(8.93)	1.52		5.9(2.86)	0.26	
	Good	114(65.1)	52.0(7.72)			99.5(8.93)			5.8(2.95)		
	Moderate	39(22.3)	53.4(8.30)			102.3(11.16)			5.6(3.42)		
	Bad	2(1.1)	62.5(0.70)						7.5(2.12)		
Birth order	First	76(43.4)	51.5(7.22)	1.09		100.8(9.91)	0.45		6.0(2.99)	1.26	
	Middle	33(18.9)	54.2(9.14)			100.0(8.97)			4.9(3.13)		
	Youngest	63(36.0)	52.2(7.56)			100.5(9.73)			6.0(2.98)		
	Only child	3(1.7)	55.6(8.08)			94.3(9.29)			5.0(3.46)		
Personality	Very positive ^a	17(9.7)	52.9(7.70)	0.33		103.3(8.76)	2.94*	c<d	5.9(2.21)	0.11	
	Positive ^b	141(80.6)	52.1(7.94)			100.2(9.29)			5.8(3.07)		
	Negative ^c	11(6.3)	52.8(7.46)			94.7(14.0)			5.6(3.74)		
	Very negative ^d	6(3.4)	55.1(4.44)			107.3(2.94)			5.1(2.99)		
Thinking about nursing	Very positive	18(10.3)	55.6(6.34)	1.33		101.1(9.21)	2.21		4.7(3.25)	1.36	
	Positive	146(83.4)	51.9(8.0)			100.3(9.56)			5.9(3.01)		
	Negative	8(4.6)	52.0(5.52)			98.1(6.35)			4.8(2.41)		
	Very negative	3(1.7)	58.5(0.70)			96.0(18.38)			6.5(3.53)		
Monthly income (10,000won)	10	27(15.4)	50.7(5.96)	0.69		100.0(10.81)	0.65		5.7(2.75)	0.01	
	10-30	114(65.1)	52.7(7.46)			101.0(9.55)			5.8(3.10)		
	30<	34(19.4)	52.4(9.85)			98.9(8.95)			5.8(3.06)		

*: p<.05

다. 교우관계는 ‘좋다’가 157명(66.0%)으로 많았으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76명(43.4%)로 많았다. 한 달 용돈은 114명(65.1%)이 10-30만원이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성별(t=2.43, p<.05)과 나이(F=3.01,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공감 능력은 성격(F=2.94,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차별행동은 종교(F=2.83,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1>.

3.2 공감, 편견과 차별행동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에 대한 공감수준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수준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은 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26, p<.001), 편견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42, p<.001), 공감과 편견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21, p<.001).

<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s	1)	2)
¹ Prejudice	1	
² Empathy	-.21**	
Discriminatory behavior	-.42**	-.26**

*: p<.05, **: p<.001

3.2 차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일반적 변수, 공감능력,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오차의 자기상관을 나타내는 Durbin-Watson 통계량은 1.99이었으며, 공차한계는 .80-.97로 모두 0.1이상이었다. 분산팽창인자도 1.02-1.23으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능력($\beta=.193, p<.05$)과 편견($\beta=-.419, p<.001$)으로 나타났으며<Table 3>, 설명력은 18.8%이었다($F=4.52, P<.001$).

<Table 3> Influencing Factors to Prejudice against Mental Illness Patients

Characteristics	Beta	SE	t	R ²	F
(constance)		3.59	2.47*		
Sex	-.119	0.80	-1.53		
Age	.002	0.39	0.03		
Religion	-.003	0.16	-0.04		
Voluntary service	-.045	0.43	-0.62		
Friendship	.027	0.38	0.35	.188	4.52**
Birth order	.032	0.23	0.45		
Personality	-.035	0.42	-0.45		
Thinking about Ns	.058	0.44	0.78		
Monthly income	.044	0.36	0.61		
Empathy	.193	0.02	2.70*		
Prejudice	-.419	0.03	-5.63**		

*: $p<.05$, **: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정신장애인의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Kim과 Seo[7], Choi 등[10]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Schnittker[25]에 의하면 사회적 지위를 가치절하하거나 사회적 역할수행 장애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편견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편견은 부모와 교사의 영향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10-11]. 그러므로 성별과 나이를 고려한 정신질환의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가 요구된다.

공감능력은 성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차별행동은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Kim 등[26]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고, Kim과 Yook[27]의 연구와는 일부 유사한 결과이다. Kim[28]에 의하면 진정한 공감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내적으로 심하게 동요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 요구된다. 즉 긍정적 성격의 경우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맞는 정서적 반응을 보일 수 있으나, 부정적 성격은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워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적 신호나 반응을 무시할 수 있다[28]. 그러므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격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이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기존 문헌을 찾기 어려워 이와 유사한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Ko[29]의 연구에서는 공직자의 종교편향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행위가 나타남을 언급하였고, Kim과 Yook[27]의 연구에서는 종교 유무에 따라 차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종교가 없는 경우에서 있는 경우보다 차별이 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불교와 기독교에서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차별행위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 Song[30]은 종교의 신실성 요인의 통제 여부에 따라 개인의 행동의사가 다르게 나타나, 개인의 행동의사가 신실성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종교와 관련 없는 개인의 특성으로 인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차별행동의 종교에 따른 차이도 종교적 신앙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공감능력이 증가할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이 다른 사람의 생각, 믿음, 인식과 같은 마음상태를 표상하는 인지적인 부분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공유하고 그 표현에 반응하는 정서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31-32], 정신간호학실습을 통해 환자를 대한 경험과 수업시간에 학습한 간호사의 올바른 자질 등의 이론적인 지식이 간호대학생의 공감에 영향을 주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감은 정서적 전이, 타인의 관점 수용,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33] 사람의 태도에 영향을 주어 이타적인 행동을 유도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지속적인 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중재가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편견이 증가할수록 차별행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과 Seo[8]은 편견을 통해 발생하는 행동적 차원이 차별이라고 설명하면서 편견은 사회적 기회를 제한하고 정신질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이들의 관련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차별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편견의 영향요인은 부모나 교사 등의 감접경험을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직접적인 접촉의 확대가 필요하다[11].

본 연구결과 정신질환자의 차별행동에 영향을 준 요인은 편견과 공감능력이었다.

Kim과 Seo[11]의 연구결과 편견은 차별행동의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다. Han과 Oh[16]의 연구결과를 보면 폭력이나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어행동은 인지적 공감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편견은 정신장애인들을 비합리적으로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불안을 느껴서 심리적 거리감을 갖고 차별행동을 낳는다[34]. 이러한 차별행동은 정신장애인들의 주거, 고용, 사회적 지지의 기회를 감소시켜 정신장애인의 개인적 불안과 가족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35]. 그러므로 다 같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호의적인 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감능력은 부모나 교사의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며 공감능력이 향상될 경우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36]. 친사회적 행동이란 자발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차별행동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차별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감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공감능력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되는 후천적인 과정이므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

적절한 교육을 통해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편견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면 정신질환자들의 재활 및 사회로의 복귀는 어려울 것이다. 간호대학생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추후 간호사들이 올바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정신질환자의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학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질 중 하나가 공감능력이다. 간호사에게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면 대상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사의 주관적인 가치관에 기인한 대상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행동은 간호를 비효율적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 상처와 좌절감을 줄 수 있다.

간호는 예술로서 환자의 신체적인 부분과 정서적, 영적인 부분까지 보듬어 주어야 할 체계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간호가 진정한 예술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감능력과 편견 및 차별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은 간호사로 하여금 더욱 더 성숙한 간호를 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은 예비간호사로서 이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공감능력의 함양은 향후 예술로서의 간호를 행하는데 바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정신질환자를 위한 간호서비스 만족 프로그램 개발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한 확대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공감,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더 많은 요인들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의 일부는 2016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REFERENCES

- [1] The Epidemiological Survey of Mental Disorders in Korea.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 [2] Mental Hospital Seclusion and Restraint Surve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015.
- [3] <http://news.donga.com/It/Medi/3/all/20070309/8415951/1>
- [4] M. H. Kim, "Comparative Study on the Cognition and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Person Among EMT College Student Before and After Psychiatric Nursing Course Work",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6, No. 6, pp. 5-14, 2002.

- [5] J. H. Lee & M. K. Seo.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among the mentally ill",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4, No. 1, pp. 135-156, 2008.
- [6] S. H. Kang, Debates to increase human rights of the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y (11-1620000-000397-01).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2.
- [7] J. H. Kim & M. K. Suh, "Compar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ypes of Mental Disorder",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37, pp. 35-64, 2011.
- [8] K. W. Park & M. K. Seo, "A Study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 with Mental Illness of College Students - Comparison with the Type of AIDS, Prisoner Cases",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8, No. 4, pp. 383-402, 2012.
- [9] M. H. Lee & M. K. Seo, "The Effects of Contact-educational Program Presented by People with Mental Illness on Anti-stigma",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43, No. 3, pp. 166-191, 2015.
- [10] S. S. Choi, S. J. Yoon, M. J. Park, Y. J. Choi,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ceived stigma of the mentally disabled",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 12, No. 3, pp. 91-115, 2008.
- [11] C. N. Kim & M. K. Seo, "A Study on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mentally ill",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9, No. 3, 589-607, 2004.
- [12] K. H. Kim & K. H. Kim, "The Teachers' Attitudes, Discrimination and Causes of Prejudice Towards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22, No. 2, pp. 97-106, 2013.
- [13] M. Mariano, M. C. Pino, S. Peretti, M. Valenti, M. Mazza, "Understanding criminal behavior: Empathic impairment in criminal offenders", *Society of Neuroscience*, Vol. 9, pp. 1-7, 2016.
- [14] C. Guozhen & W. Li, L. Shengnan, "A research on moral empathy, trend of helping behavior and their reactions among children aged 6 to 12 in China", *Psychological Science*, Vol. 27, pp. 781-785, 2004.
- [15] J. L. Loudin, A. Loukas, S. Robinson. Relational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empathy. *Aggressive Behavior*, Vol. 29, pp. 430-439. 2003.
- [16] H. N. Han & I. S. Oh, "The Relation between Bystanders' Behavioral Reactions to Bullying, Gratitude, Empathy, and a Sense of School Belonging",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 27, No. 4, pp. 53-75, 2014.
- [17] H. S. Kim, "Psychopathy - Empathy, and Moral Responsibility", *Pan-Korean Philosophy*, Vol. 77, pp. 355-385, 2015.
- [18] S. H. Park,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Seoul: Mooneumsa, 1997.
- [19] N. Davi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 in Psychology*, Vol. 10, No. 85. pp. 151-170, 1980.
- [20] B. Bryant,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Vol. 53, pp. 413-425, 1982
- [21] B. S. Jeon,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Ph.D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3.
- [22] J. E. Bae, "The effects of role-playing on empathy ability and prosocial behaviors",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8.
- [23] J. N. "Kim, Development of the Social Stigma Scale of Mental Illness Pati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8, No. 3, pp. 595-617, 2003.
- [24] M. O. Kang, "The Effects of Facilitative Communication Skill training using Role play on Prejudice and Intention of Interaction with the Mentally-disabled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Psychodrama and Sociodrama*, Vol. 12, No. 2, pp. 23-39, 2009.
- [25] J. Schnittker, "Gender and Reaction to Psychological Problem: An Examination of Social Tolerance and Perceived Dangerousn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44, pp. 224-240, 2000.

[26] S. R. Kim, H. Y. Kim, J. H. Kang, "Effects of Type D Personality on Compassion Fatigue, Burnout, Compassion Satisfaction, and Job Stress in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20, No. 3, pp. 273-281, 2014.

[27] K. H. Kim & S. P. Yook, "The effects of ageism for the elderly experiences on suicide behavior: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 No. 2, pp. 131-151, 2013.

[28] N. Pop-Jordanova & E. Stoimenova-Canevska, "Emotional intelligence and big-five personality factors in female student sample", Makedon Akad Nauk Umet Odd Med Nauki, Vol. 35, No. 2, pp. 59-66, 2014.

[29] B. C. Ko, "Public Servant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of Religiou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Vol. 31, pp. 191-213, 2009.

[30] M. G. Song, "The Effects of Religion on Pro-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Vol. 24, No. 1, pp. 27-56, 2016.

[31] R. J. R. Blair, "Responding to the emotions of others: Dissociating forms of empathy through the study of typical and psychiatric population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Vol. 14, No. 4, pp. 698-718, 2005.

[32] A. Smith, "Cognitive empathy and emotional empathy in human behavior and evolution", Psychological Record, Vol. 56, No. 1, pp. 3-21, 2006.

[33] S. D. Preston & F. B. M. de Waal, "Empathy: Its ultimate and proximate bas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Vol. 25, No. 1, pp. 1-72, 2002.

[34] C. N. Kim, "Development of the Social Stigma Scale of Mental Illness Pati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8, No. 3, pp. 595-617, 2003.

[35] A. C. Watson, "Mental illness stigma : Ideology, causal attribution, perceptions of dangerousness, and behavior response",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2001.

[36] B. S. Lee, Y. H. Kang, Y. S. Nam, "The Effects of Reading Education Program on the Student's Empathic Ability and Peer Receptive Attitude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Vol. 11, No. 2, pp. 195-214, 2010.

저자소개

문 원 희(Weon-Hee Moon)

[평생회원]



- 1990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06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5년 3월 ~ 2015년 3월 : 대전 보건의료대학교 보건의료정보과 교수
- 2015년 4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융합 간호학, 교육콘텐츠, 의료정보학, 병원정보시스템

권 명 진(Myoungjin Kwon)

[정회원]



- 1996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08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0년 3월 ~ 2014년 2월 : 혜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정서, 노인, 만성질환, 정신질환

김 영 희(Young-Hee Kim)

[정회원]



- 1999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여성건강, 건강증진